

# 인천시,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 사업’ 속도

‘더불어마을’ 매년 10곳 이상 조성 내년 ‘빈집은행’ 구축... 활용 유도 석남역 등 10곳 국비 908억 확보



2018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석남역 주변. 인천시

인천시가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박남춘 시정부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 마련과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명해 원도심 활성화를 총괄할 계획이다.

또 계획부터 운영까지 주민공동체가 중심인 ‘더불어 마을’을 조성하고, 빈집 정보 조회와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행’을 구축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5년간 20개소 추진이 목표다.

### ◆ ‘더불어 마을’, 매년 10곳 이상

인천시는 원도심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소규모 마을 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을 매년 1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원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주민 중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마을을 가꿔나가는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주민들의 바람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된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마

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 재생 사업으로, 민선7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내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예산 확대에 발맞춰 인천의 각 마을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매년 더불어 마을을 1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 ◆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유

시는 또 원도심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

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내년에 구축한다.

시는 올 9월부터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구축해 운영 예정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빈집은행에 정보를 공개해 활발하게 빈집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한국감정원,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빈집관리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활용,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선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인천 원도심 10곳 도시재생뉴딜 선정

또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의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인 석남역을 포함 5곳이 선정돼, 총 10곳 총 90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협력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사업으로 마을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사업추진협의회로 확대 구성하고, 현장소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민들과 지속 토론하고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금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 주변 3곳을 포함해 총 11개 사업을 정부 뉴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올해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인 석남역 일원(서구 석남동 484-4번지, 21만3392㎡)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300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핵심 거점인 석남 체육공원 주변에 석남파크 플랫폼, 노후청사를 활용한 행정복합센터, 혁신일자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는 공영주차타워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 원도심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거북시장 주변은 시장리뉴얼, 주차타워, 특화거리 조성 등 상생경제의 허브로 탈바꿈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i@metroseoul.co.kr

##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23~25일 3일간 정부 면제정책 동참 제3경인 등 차량 103만대 통행 예상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따라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도로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갖는 상황으로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은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으로 도

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김승열 기자 kimsy@



무안황토갯벌축제. /무안군

##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성료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무안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펼쳐진 ‘제6회 무안황토갯벌축제’가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는 9개 읍면 대표가수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노래자랑이 펼쳐져 각자의 흥과 끼를 마음껏 뽐냈다. 초대가수로는 오로라, 권선국(녹색지대) 등이 출연하여 무대의 흥을 돋우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무안황토갯벌축제는 ‘무안 황토갯벌 1㎡의 가치’라는 주제로 낙지·농게·윤저리 잡기, 갯벌머드탕, 무안황토탕, 황토놀이터, 갯벌올림피아드, 황토갯벌운동회, 갯벌씨름대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낙지·농게·윤저리 잡기, 갯벌올림피아드, 갯벌씨름 등의 이색적인 갯벌체험과 고무마, 양과 등 지역 농·특산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깜짝경매 이벤트는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무안 황토갯벌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갯벌체험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황토 갯벌에서의 생태체험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양수현 기자 ysn6313@

## 광주 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우수기관’

광주광역시 농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141개 시·군 443곳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 농기술센터는 정부정책 반영 및 수행, 농번기 운영시간 확대, 농기계 현장배송 서비스, 이용료 카드결제 시스템,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추진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상사업비 2억원을 특별 교부받았다. 시 농기술센터는 상사업비를 활용해 노후 농기계를 교체, 부족한 임대 농기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 농촌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응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3년 광산구 옥동에 문을 열었다. 이후 농기계 임대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16년 1월 북구 용강동에 북



농기술센터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광주광역시

부분소를 개소하고 현재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사업소는 꾸준한 서비스 확장, 장비 추가 구입 등을 통해 매년 임대실적이 약 120~130%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드론자격증 취득반 운영, 농번기 토요일 운영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개선해 보다 나은 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중일 기자 raser506@

## 수도권 순회 직거래장터 담양군, 21일까지 운영

담양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담양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순회하며 ‘2018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군은 10일부터 서울시청과 정부대전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양천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직원과 주민 대상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서울광장, 용산역, 양천 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로비 등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담양의 특산품 판매 및 알리기에 나선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정정한담양의 자연과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한 햅쌀을 비롯해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무차, 작두콩차, 냉동죽순, 죽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남 담양=봉채영 기자 bcy2020@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단 정비효과 ‘톡톡’

평택시, 지난달 보상금 1949만원 지급

평택시가 지난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이전에는 사전 선별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바 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만4371장, 벽보 1만3829장, 전단

13만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만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hb777@